

취미생활5- 서예

한글서예, 한자서예, 혼자서 쓰기



선유 벽암
2018. 4. 16. 7:45

이웃추가

나 혼자 서예하기 - 책보고 붓 글씨 쓰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 혼자 서예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을 위해 그동안 붓글씨를 써 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상식이 그 분

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여기 올립니다. 혹, 오류나 정정을 요하는 부분은 댓글로 맞겠습니다.

----- < > -----

서예란 붓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면에 글씨로 표현해 내는 개인적 예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붓글씨 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서예(書藝), 중국은 서법(書法), 일본은 서도(書道)라 하고 있습니다 서예는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누리게 하고 심적 내면 세계에서의 즐거움을 크게 느끼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서예, 붓글씨를 잘 쓰려면 첫째 多書(다서), 둘째 多見(다견), 셋째 擇師(택사)를 잘해야만 한다 라고 누군가 말했죠,

즉, 1. 多書 - 글씨 쓰는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하고

2. 多見 - 좋은 글씨와 좋은 글씨 쓰는 모습을 많이 보고

3. 擇師 - 좋은 선생을 만나, 좋은 글씨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예 초심자가 좋은 스승 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죠. 그러므로 이미 유명한 분을

찾아가 제자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직장과 거주지, 교통, 등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통신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대가님들에게 배울 수 있어 좋을듯 합니다.

직접 글씨 쓰시는 모습을 보고, 전수받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면을 통해 필의를 느껴 보심도 권장할 만 합니다.

다만, 혼자서 서예를 하시려는 분은 이런 저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서첩, 즉, **책이 선생**이 되어 주니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책을 잘 고르기만 하면 즉,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서예에 있어 좋은 책이란 일반적으로 힘과 유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체로 쓰여졌고, 붓을 움직이며 글을 쓰는 운필법,

붓의 기필과 운필, 수필, 즉, 붓을 운전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초심자에게는 좋은 책이라 권하고 싶네요.

서체와 서풍에 따라 획 쓰는 방법, 즉 운필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한가지 운필법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서예 해서체의 경우, 기본획인 한일자<一>와 종획인 갈고리 <𠂇>의 운필과 획 처리는 복위체, 왕희지 구양순체, 안진경체 등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으며 획의 형태도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또 **별획(좌측으로 긴 빼침획),波法(파법), 갓머리, 사구(斜鉤), 구획(鉤劃), 횡절구(橫折鉤) - (작은 갈고리)** 등, 등, 여러 획에서의

운필기법도 구양순체, 복위체, 안진경체, 등 각 서체, 서풍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고요.

물론 서예 초심자이기에 한가지 서풍으로만 일관성을 유지한채 서예를 배우도록 하고자 함도 있겠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본인의 운필법과 다른 방법으로 획을 쓴다 하여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일선 강사들의 모습을 가끔 주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서체가 아닌 다른 서체를 아직 섭렵하지 못하였거나 오로지 한가지 서체만 써 왔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또 중봉이라 함은 붓이 수직을 유지하거나 수필상태인채 붓끝이 쓰고 있는 획의 중심선을 지날 수 있는 상태를 뜻 합니다.

중봉을 중요시하는 해서의 경우, 특정 획을 편봉 또는 측필로 처리한다 하여 잘못된 운필이라고 흔히들 말 합니다

그러나 쉽고 간결한 방식으로 힘있고 유려한 글씨를 쓸 수만 있다면 해서의 경우라도 편봉, 측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힘있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붓끝 털을 의도적으로 꺾어 접어진채로 획을 쓰기도 하죠

물론,서예 초심자인 경우, 편봉, 측필, 노봉으로 운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견 이상 서예가들은 해서체는 물론 예서체,

행,초서체의 글씨를 쓸때, 편봉과 측필, 노봉을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봉이란 중봉과 달리 붓끝이 획의 중심이 아닌 선을 지나는 운필이며, 측필은 붓을 세우지 않고 필관이 옆으로 기운

상태로 빗겨내듯 쓰는 운필을 말합니다. 또 노봉(露鋒)은 기필시에 붓끝을 역입하지 않고 붓끝이 보이도록 기필하고 장봉(藏鋒)

은 붓끝이 보이지 않도록 역입하여 기필함을 말합니다.

가 필요하죠.

본인 방식과 다른 운필법에 일선 강사들의 고집스런 거부 반응은 많은 서체에 대한 좁은 식견 탓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에서의 그래픽, 캘리그래피, 등, 획의 변형과 색상의 조화를 통해 미(美)를 창출해 내는 시기에 붓글씨라 하여 굳이

수천년 전의 방식만을 지금도 고집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지난날의 그 유명한 서예가들이 과연 이런 방법으로만 글씨를 썼을까? 의문입니다.

현세까지 전해 내려오는 수천년 전의 비문, 서첩들의 글씨 획들을 보고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해 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로

이제는 여러 획을 쓰는 방식과 특정글자의 서예글씨 쓰는 방법들 마저 바뀌어 가려함이 우리 주위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4~ 50 년전 옛 분들에게 배운 서예가 지금도 올바른 서예라는 의식은 본인만의 과거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서예 방식이 모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체 서풍에 따라 과거 방식의 좋은 점은 계승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서체, 필법 변화는 계속 추구되어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듯 붓으로 글씨를 쓰려면 붓을 운필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좋은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운필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익히지 않고 글을 쓰면 평생 글을 쓴다 해도 좋은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운필이 잘못되면 글씨의 모양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지요. 그래서 붓글씨는 운필법이 중요하답니다.

서예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은 우선 기본적인 운필방법을 반드시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자서예

의 경우는 한자 기본부수를, 한글서예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먼저 쓰시면서 운필법을 익히시는 게 훗날까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연후 좋은 책, 좋은 서첩을 선택하시어 붓 글씨를 즐기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글씨를 쓰시기 전에 항상 기쁘고 편한 마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구요,

글씨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라 했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서첩의 글씨를 따라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반면 요즈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양강좌의 대부분의 실태는 강사의 붓글씨 체본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

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생 스스로 서첩에 따라서 붓글씨를 쓰게한 후, 잘 안되는 부분이나 획의 교정, 결구, 포치등의 첨삭, 등을 통해 강사들이 교정

해주는 진취적 수업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책의 글자를 쓰기 전에 한글서예는 자음과 모음, 한자서예는 한자부수를 운필법에 맞추어 쓰는 것이 서예를 보다 쉽게 익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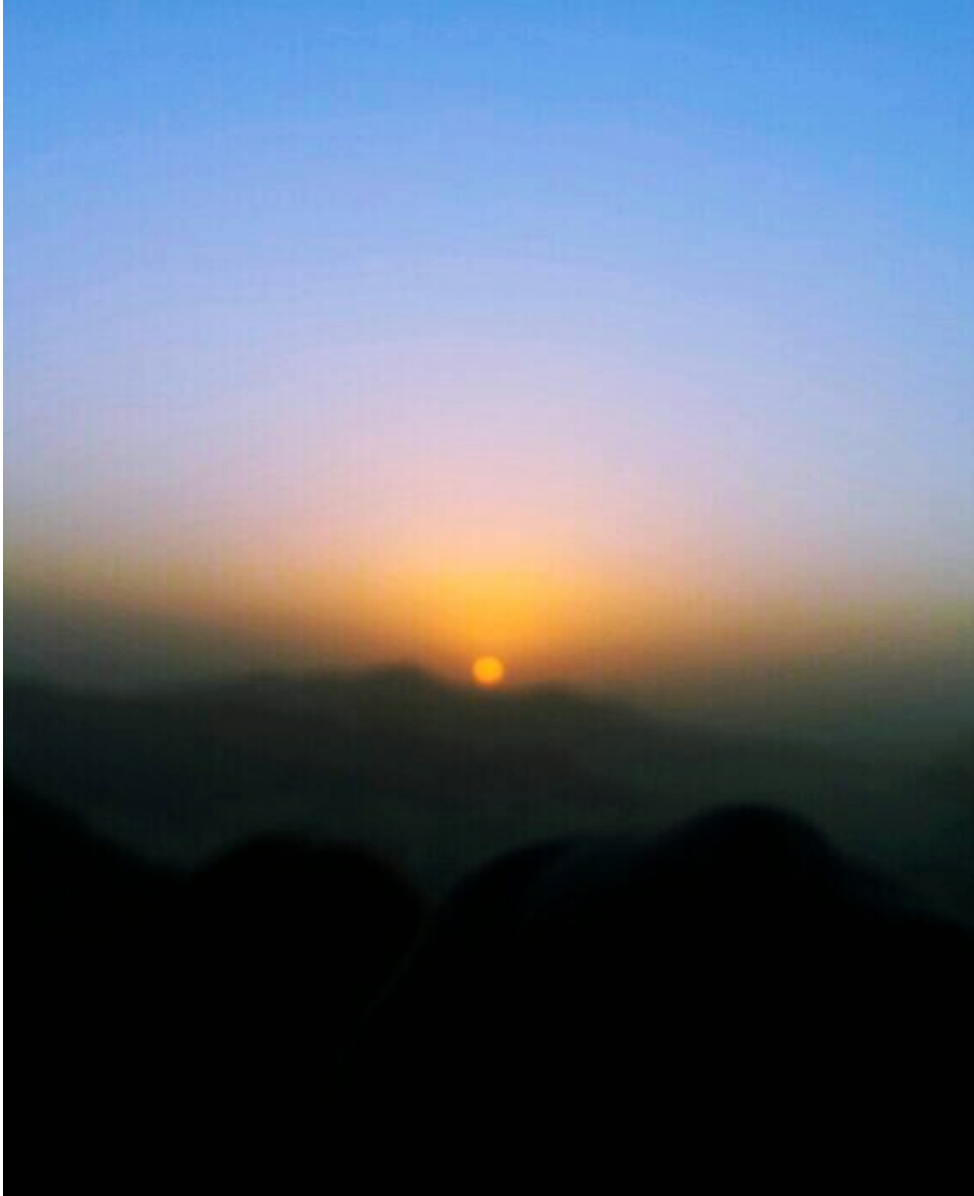
방법임을 앞서 밝혔죠. 그후에 서첩의 글씨를 한획 한획 여러번 반복, 모방해 따라 쓰면, 운필법이 자연히 손에 익혀지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씨를 모방해 따라 쓰라는 것은 운필법을 익히기 위함이지 먼훗날까지 모방한 서체로 글씨를 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날 운필법이 몸에 익혀졌다면 자신의 심미를 담아 자신의 개성대로 글씨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바르게 붓 글씨 쓰는 연습, 다서를 열심히 하도록 하시죠. ㅎ.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2018,4,16,



오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예의 서체**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1. 한글 서체

크게 나누어 **판본체(고체)**와 **궁체**로 나뉘고요, **궁체**는 **정자체**와 **흘림체**(서한체)가 있습니다. 그외 자유롭게 쓰는 **민체**도 있어요

판본체는 한 획을 방필로 시작해서 방필로 끝나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정석 **판본체**외에 요즘은 켈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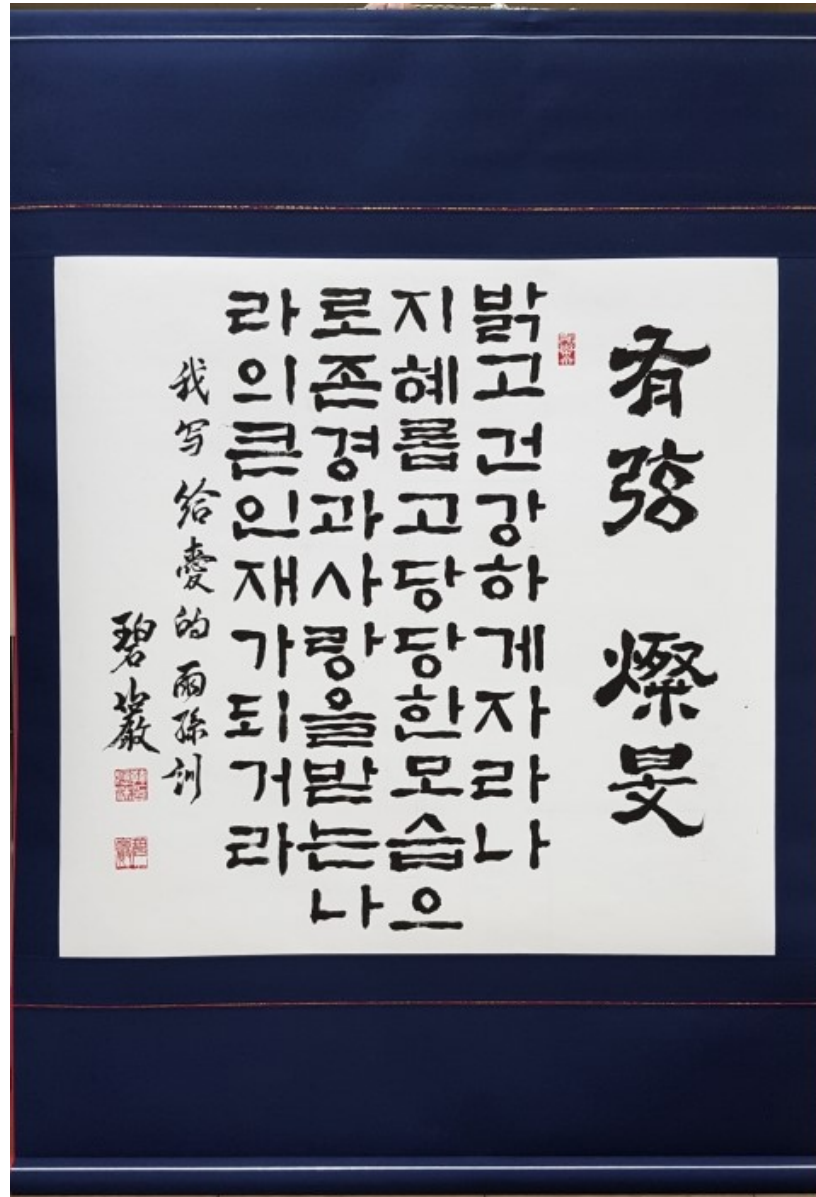
영향받인지 원필로 시작, 획의 중간 중간에 절(혹은 파세)을 주면서 원필로 끝나는 **판본체**를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여유를 느끼게

하는 이 글씨체,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민체**는 제약없이 자유롭게 켈리그래피와 비슷한 느낌으로 쓰는 서체를 말합니다

宣遊碧巖

- 원필은 둥글게 시작하여 획의 끝 부분 역시 둥글게 끝저리하는 획.
- 획의 시작과 끝부분이 모가 난다해서 방필, 둥글다해서 원필이라고 합니다

원필의 느낌으로 쓴 한글 족자



한자의 예서체로 쓴 두 손자의 이름, 한글의 판본체로 쓴 가르침 말, 한자의 행서체로 쓴 조부의 가르침 글입니다.

2. 한자서체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5체가 있고요, 이에 갑골문과 금문 체, 죽 목간문 체를 포함, 7체라고도 합니다.

서체마다 세분하여 보면,

전서체는 갑골문과, 석문 금문으로 석기와 철기시대, 지역, 년대에 따라 많은 글자가 서로 다르던 초기 글자를

예서체는 진나라때 문자 통일후 나온 소전을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 **한(漢)**나라때 예관(隸官)**정막**등이 간추린 서체(통설)이다.

년대에 따라 글씨의 형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서의 둥근획을 모나게 개선한 정도의 정사각형 태 서체인 **고예(古隸)**,

이후 소전의 8 할 또는 八자처럼 좌우로 벌려 쓴다 하여 **팔분예(八分隸)**라고 불려져 온 예서의 서체 발달은 한(漢)나라 중,후기 비문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서체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년대별로 비문들을 보면, 석문송, 을영비, 예기비, 사신비, 조전비, 장천비, 등의 비문 서체들은 장중하고도 질박 하여 남성적 느낌을

주는가 하면, 조전비등은 대범하면서도 간결하고 날렵, 미려하여 마치 여성적 느낌을 주는 서체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체는 예서체 이후의 서체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용한자의 정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자체 한자죠.

해서체는 **동진(東晉)**시대 양자강 유역의 남방민족의 왕희지체를 당나라때의 구양순이 이어 발전시켜 온 구양순체, 남북조 시대인

오,동 서진,송,제,양,진시대 무렵부터 북방민족인 북위(北魏)시대 주로 써온 북위체(육조체), 그 이후 두 서체의 조합이라할 수 있는

안진경체. 그 외에도 여러 서체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북방민족의 북위서체는 강한 힘을 상징한다면 남방민족의 왕희지서체는 유려함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수나라 초기에 남, 북 서체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묶어 내는서체로의 서법을 개발, 보급 하려는 통치자의

노력을 살펴보면. 새로운 서법의 글씨를 돌에 새겨 일반인들이 따라 쓰게 하였고, 새 서법에 의한 과거제도로 인재를 등용하는등

중국의 통일국가인 수나라, 당나라에 새로운 서법을 확립하려 함이 서예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행서체는 한글 흘림체의 형태처럼, 한자의 흘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서를 굳이 종류를 나눈다면 해서의 느낌이 많은 행서를 해행, 초서의 느낌이 많은 행서를 행초라고도 부릅니다.

행서의 서체는 최초 글자를 써 왔을 진나라 무렵부터 쓰여져 왔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진시대 왕희지의 난정서 등의 행서는 그 절정

을 이룬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초서체**는 전서, 예서의 규격성과 복잡성을 탈피하고 글자의 윤곽이나 일부분만을 표현함으로 흘림 체인 행서보다도

더 간결하게 흘려 쓰며, 획의 끊김이 없이 이어 써 나가는 형태의 글씨입니다. 예서가 한창 발전해 나갈 때인 한 나라 때부터

문인과 학자들이 초서를 잘 써야만 자신의 유식함을 뽐내려 하듯 성행, 쓰여 졌다고 합니다.

초서의 종류로는 **한(漢)**나라에서부터 **진(晉)**나라 말까지 예서를 흘려 쓰던 **章草(장초)**, 그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今草(금초)**,

그리고 미친듯이 거의 끊어짐이 없이 이어서 쓰고 있는 서체를 **狂草(광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체는 아주 오래전 부터 글씨를 쓰는 자들의 심성과 정치적풍토,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글씨체는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구요.



서예를 하시려는 많은 분들은 붓 잡기도 전에 어떻게 해야 붓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예, 붓 글씨 쓰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짧은 기간 내에 잘 써 내기란 더욱 어렵구요.

그 이유는 펜 글씨를 쓰는 펜과 붓 글씨를 쓰는 붓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동안 사용하여온 펜 끝은 비교적

딱딱하지만 붓은 그에 비해 상당히 유연하죠. 지면에 글씨를 쓰려고 힘을 주게 되면 서로의 느낌 차이는 상당합니다.

펜 글씨의 경우, 펜에 필압을 주고 글을 쓰면 지면에 자국이 나며 획 굵기가 조금은 커지죠.

그러나 붓에 필압을 주고 글을 쓰면 그 획의 굵기와 글씨가 주는 느낌은 펜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펜 보다는 먹물을 먹은 붓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많은 시간의 숙련이 요하게 됩니다.

붓에 가하는 필압을 늘 일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각 시점마다 강,약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서는

붓 끝을 모아 세운 후 획 방향을 던하는 스킬이 요하는 등, 다소 어렵고 복잡하고 미세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손가락은 젓가락을 사용하여 온 탓인지 매우 예민하여 그런 동작들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죠.

붓 글씨 초심자의 경우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약 1~2시간의 붓 글씨 연습함을 가정할때 최소한 1~2개월,

길면 2~3개월의 붓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너무 긴 시간인가요? 본인 노력 여하에 이보다 더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서예 초심자에게 권해 드릴 수 있는 책으로는 시중 서점이나 문방사우필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서책 중에서 운필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서책 준비가 필수고요. 보통 책 한권에 1만원대 입니다.

각 서체별로 기초필법강좌라는 책으로 기억됩니다. 일반 서점보다는 문방사우 필방을 찾아 점포 주인께 붓 글씨의

○○서체 기초운필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아마 서책은 물론 그외 준비해야 할 것에 친절할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처음 서예를 하시려는 분께 권해드리는 서체로는.

한글서예는 판본체를 먼저 씁니다 - 일반적으로 판본체(일명,고체)가 궁체보다 적응하기가 쉽다고 보죠.

한자서예는 해서 또는 예서체 (여성의 경우) 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자를 알고 있는 분은 잘 모르는 분보다 적응하는 면이 빠른 듯 해요. 한자를 아시는 분은 적응이 빠르시니 해서를 먼저 쓰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듯 싶습니다.

반면 한자에 익숙치 않으신 분이나 서정적 정서이신 분, 여성분은 예서체가 처음 적응하는 데 좋을 듯 싶어
요.

이상은 모든 분들께 적용된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글씨를 쓸 붓을 서체에 알맞게 준비 합니다.

한글서예 - 한글서예용 붓크기 16호 정도의 중급자용 붓 (3 ~ 4만원 정도)

한문서예 - 해서체용 - 붓털의 탄력성과 붓끝이 예리하게 잘 모아지는 붓으로 20호 크기의 중급자용 붓 (4 ~ 5만원)

예서체, 전서체용 - 붓털이 비교적 부드러운 양모계통의 붓, 붓끝이 뽀족하게 모아지지 않아도
무방

하며, 크기 20호 정도의 중급자 용 붓 (4 ~ 5만원정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서예 필요용품.

우선 서책과 붓은 기 준비되었다면

그외 용품으로 벼루, 먹물, 붓글씨를 연습할 화선지(반절지 100매 - 1만원내외), 서진(화선지를 누르는 막
대),

서예 받침판 (비닐판,또는 양모직 천으로 탁자에 먹물 문힘 방지용도) - 이상의 물품대 4 ~ 5만원이 소요
예상.

이상의 용품들은 서책을 구입한 문방사우 필방이나 인터넷 필방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붓을 잡아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2018. 4. 21.

나옹선사님의 시

靑山兮要我以無語 蒼空兮要我以無垢

(청산혜요아이무어)

(창공혜요아이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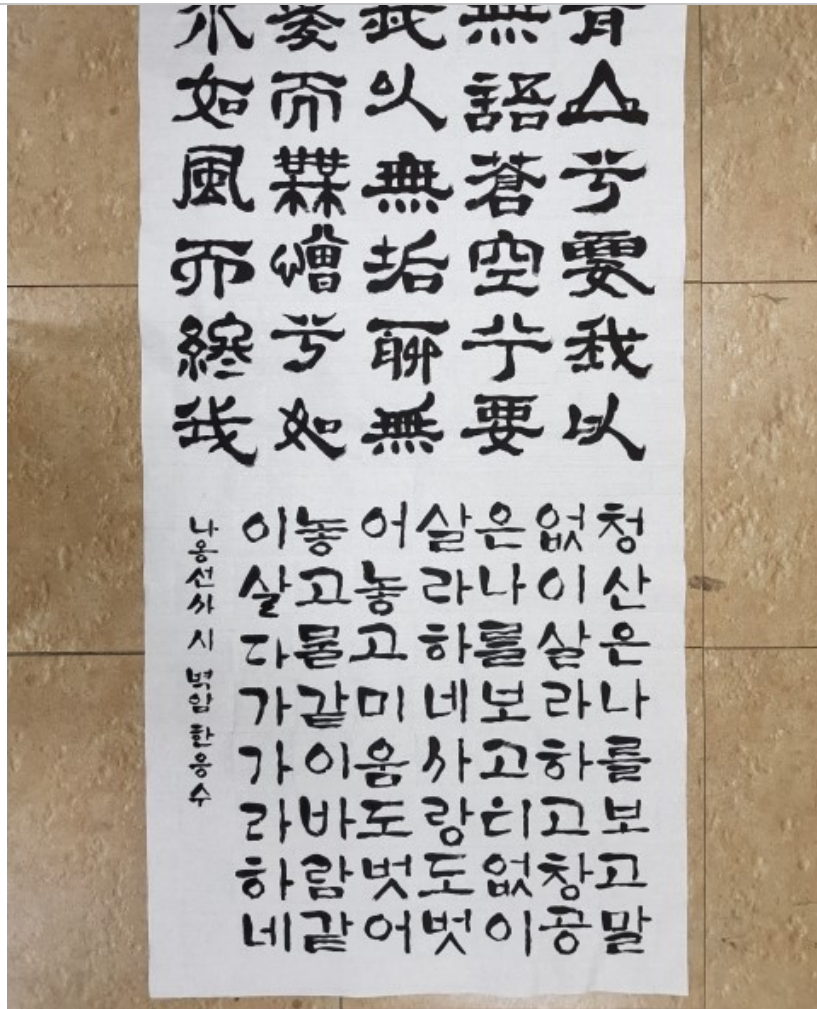
聊無愛而無憎兮 如水如風而終我

(료무애이무증혜)

(여수여풍이종아)

아래 사진의 한자와 한글은

오른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왼쪽으로 읽어 갑니다



- 나옹선사님의 시, 한자는 예서체로, 한글은 판본체를 약간 변형, 캘리그래피 느낌이 나도록 써 봤습니다. 캘리를 배워 쓴 글도 아니고 잘 쓴 글씨는 아니어도 가끔 느낌으로 써 온 글씨입니다. 한자의 예서체는 한자자전에서 느낌이 좋은 글자를 찾아내 펜으로 메모해 두었다가 한번 연습한 후 메모를 보며 두번째 쓴 글씨입니다. 몇번 연습이 더 있었더라면 잘 쓸 수 있었을텐데...ㅎ

예서체는 을영비, 사신비, 장천비문에서는 비문 글씨에서 질박하고 장중한 느낌이 나는데 반해, 예기비, 조전비는 비문 글씨가 유려해지면서 깔끔하고 날렵한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 사회현상들을 들고 있지만 추론일 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비문 문화기시대 초기에는 비문을 쓴 서관의 직, 성명이 미상이었으나, 말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비문을 쓴 서관의 직명과 이름을 비문에 새겨 넣는 현상들을 유추해 볼때 비문을 쓴 서관의 지위가 그 시기부터 인정받지 않았겠냐 하는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서관들은 비문의 글씨를 더욱 잘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박함과 장중함보다는 점차 미적감각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문문화의 말기의 비문 서체는 날렵하면서 아름다운 선이 유려함을 보이고 있다 라고 다수의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한자는 한자자전에서 본인이 고른 예서체 글씨체들입니다. 하나 하나 글자체와 연대를 비교, 확인은 아니 했지만 아마 초기의 예서체 글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질박하고 투박한 느낌이 많이 나는 글자체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려한 글씨보다는 질박하면서 글씨에서 힘이 느껴지는 글씨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자 서예에서 써야하는 예서체이고, 한글체도 비록 변형되기는 했지만 판본체라서 올려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랄게요.

宣遊碧巖

이 때부터 한글서예는 자음과 모음을 쓰시고요, 한자서예는 1 획의 한자부수부터 순차적으로 5획 부수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해 보세요.

다음에 뵈요...

2019.4.23.



- 민통선 내 민물매운탕 음식점 전경입니다 -

오늘은 서책을 보고 서예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책의 운필법을 먼저 읽어 이해하고, 쓰려는 글자의 획 배열을 뇌리에 익힌 후 글씨 쓰기를 하도록 한다.

둘째, 서책의 필본을 복사하듯 따라 쓰는 연습을 하라. 한자의 경우, 글자의 음과 훈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쓴다.

셋째, 잘 안 써지는 획과 글자는 여러번 반복 쓰도록 한다.

넷째, 유튜브 등, 유명 서예가들의 붓 글씨 쓰는 동영상은 자주 보고 운필법과 글씨를 마무리 하는 결구법을 익힌다.

이같이 열심히 수련하여 시간이 흐른 후에는 본인 만의 서체가 완성되니까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기초가 중요 ...

붓글씨를 잘 쓰려면 열심히 써야 되지만 서예대가의 붓글씨 쓰는 동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책 한권 따라 쓰기를 이런 과정으로 최소 두세번은 거쳐야 서예가 무엇인가 알듯한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이 때가 비로서 서예의 1차 관문을 통과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주 2~3 회, 1회에 2시간 정도의 붓글씨 쓰기로 붓을 잡은지 아마 1 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될겁니다.

이 시기는 계속하여 온 서예에 실증이 느껴질 때이므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 둘까 하는 갈등이 올 때입니다 .

이 고비를 넘기는 자 만이 진정한 서예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글 판본체 경우는 대략 1 년 ~ 1 년반 정도 쓰셨다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판본체
만 쓰다느

전서나 해서체를 써보는 것도 자신의 서예 실력 제고에 등불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한자 해서를 처음 시작한 경우는

개인에 따라 조금 더 긴 2~3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서예의 경우, 한자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한자를 모르고 시작하는 것과는 서예 적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한자를 이미 알고 있는 분은 한자 서예에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적응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한자를 알고 있으면 하나 하나의 획과 그 획들의 배치를 이미 두뇌에서 인식하고 있음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이는 서예글씨 결구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서예 적응에 아주 수월하답니다.

결구란 두개 이상의 획을 써서 하나의 글자를 쓰는 것을 말하는 데, 각 글자 서체마다 결구법은 서로 다릅니다. 획의 다소와

편중위치에 따라 획의 굵기와 길이를 달리하며 글자마다 상하, 좌우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꾀하려 하는 기법이 결구법이죠.

서예를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한획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결구법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는 더욱 어렵다할 것이나 그래도

결구를 잘 해내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하나하나의 획의 처리도 잘 해야겠지만 결구를 잘함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처음 서예를 하실 때부터 각 글자의 결구를 염두에 두고 붓 글씨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결구법이란, 하나의 글자가 상하, 좌우의 획이 많고 적음에 따라 획의 굵기와 길이의 조정, 일정 간격을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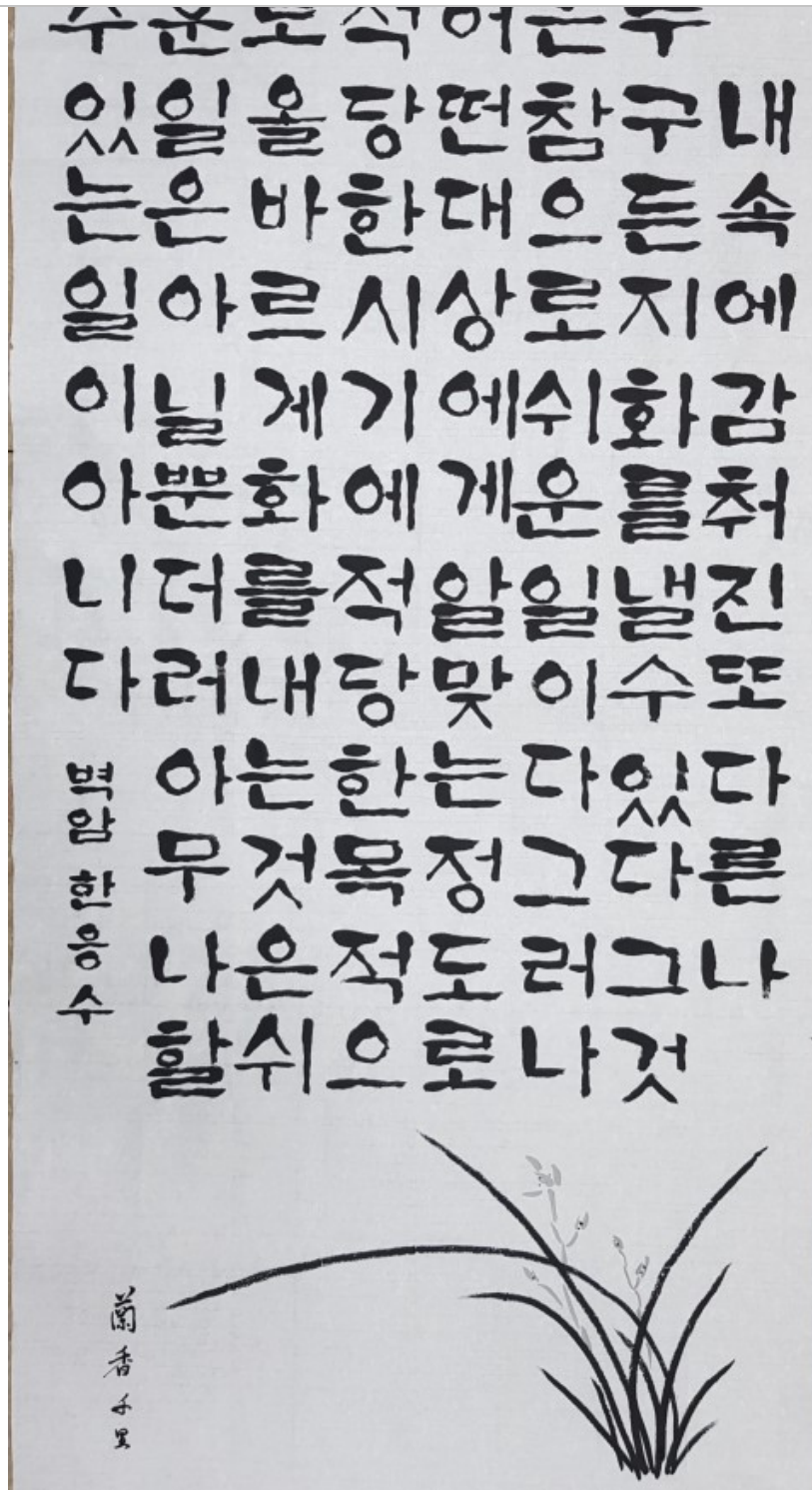
획간의 배치로 획간 충돌방지와 글자의 전체 균형과 안정감을 추구해 좋은 글씨를 쓰려 하는 각 획의 배치법을 말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런것도 있구나하고 넘어 가시죠. 글씨를 쓰다보면 어느날인가 떠오를 때 다시 생각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2018.4.28.

캘리그래피 느낌으로 쓴 한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분들이 이 코너를 찾아와 많은 관심 보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벌써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오월이네요. 늘 즐거운 시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먹물 먹은 붓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을 떨어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붓 글씨를 잘 쓰려면 우선 붓과 친해져야 합니다.

宣遊碧巖

아래 그림처럼 우리도 따라 해보시죠. 처음엔 전전히~~~ 찝끔 숙날되든 빨리 빨리~~~~ 상단스럽게 많이 많이 하세요.

또 다른 것, 해보고 싶은 것 있으시면 맘껏 그려 보고, 써 보세요. 그러면 붓과 어느정도 친해지셨을 겁니다.

처음엔 손에 먹물이 많이 묻혀질 겁니다. 비누로 씻으면 잘 지워지니 걱정할 것도 없고요.

옷에만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흰색계통이나 고가 옷은 붓글씨에 조심하시구요. 처음은 앞치마 사용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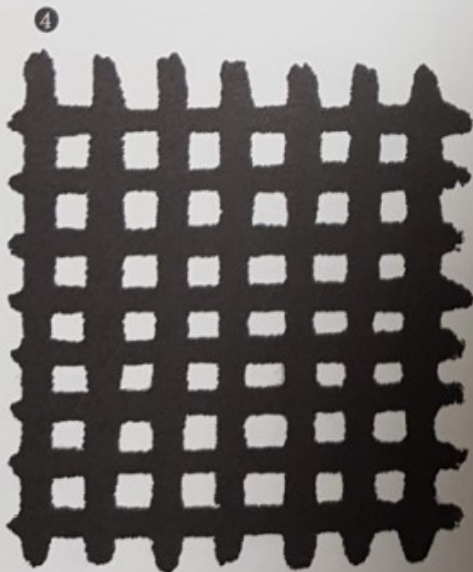
정 자

기초 운필(運筆)

글씨를 잘 쓰려면 먼저 운필(붓을 움직이는 것)하는 법을 잘 알고 익혀야 한다. 즉 운필법(運筆法)에 의해서 써야 글씨가 제대로 되기 때문이다. 운필법에는 중봉(中鋒)과 편봉(扁鋒)이 있다. 중봉은 붓끝이 굽는 선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을 가리키며, 편봉은 붓끝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서 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글씨를 잘 쓰려면 중봉에 의하는 운필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①의 가로 굿기와 ②의 세로 굿기를 붓을 반듯하게 세워 중봉으로 충분히 연습하여 습관화해야 한다. ①과 ②를 따로 따로 충분히 익혔으면 ③, ④와 같이 가로 및 세로 굿기를 반복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이렇게 굿는 연습을 많이 한 후에 기본획 연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글씨의 배움 순서이다.



단구법 - 팔을 책상위에 놓고 연필을 쥐고 쓰듯, 엄지와 검지로 잡고 중지로는 붓을 받쳐 잡는 방법, 비교적 작은 붓으로 작은 글씨를 쓸 때의 집필법이죠.

쌍구법 - 엄지를 붓의 왼쪽, 검지와 중지를 오른쪽에서 붓을 감아잡고 약지.소지는 엄지쪽 방향에서 받쳐주며 검지.중지와 반대 방향에서 붓을 잡는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집필법임. **많은 분들이 이 집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법 - 붓의 필관이 큰 대형 붓을 잡는 집필법이구요. 붓의 필관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는 방법
#. 위 쌍구법은 오른손으로 붓을 잡는 경우를 설명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 하여 글씨를 쓰기에 좋은 자세를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바른자세란

- 의자에 앉아 글씨를 쓰는 경우

상체와 허리를 바로 세우고 고개를 숙여 지면과의 시선을 약 3~40cm 정도 거리 유지하고 한손은 종이위에 올려 놓는 상태가 좋다. 그리고 두 다리는 가즈런히 하고 붓잡은 방향의 발을 조금 앞으로 내미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 서서 글씨를 쓰는 경우

두발을 어깨 넓이와 비슷하게 벌리고 발 끝이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게 한 다음 상체와 어깨를 편 상태로 한손은

종이위에 손 바닥으로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올려 놓고 허리와 고개를 자연스럽게 굽혀 지면과 눈이 약 50cm 정도

유지함이 적당합니다.

저는 서서 쓰는 데 손바닥을 지면에 올리고 엄지와 중지로 우측에 쓸 글자 크기를 가름하며 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붓을 잡는 팔의 자세로는 **현완법, 제완법, 침완법**이 있습니다.

현완법 - 글씨를 쓸 때 붓을 잡은 팔을 지면위로 들어 올려서 팔 전체의 움직임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 손목만 가지고

쓰는것이 아니며, 팔을 겨드랑이에 붙여서 쓰지 않도록 한다 - 맷돌을 돌리는 자세를 연상하면 좋습니다.

제완법 - 팔을 책상위에 올려 놓고 쓰는 방법, 일반적으로 집필법도 단구법을 사용한다.

침완법 - 대체로 작은 글씨를 쓸 때 취하는 자세로서 한 손을 책상에 올리고 그 손등위에 붓을 쥐 손목을 올리고 쓰는 방법

일반적으로 쌍구법의 집필방법과 현완법의 팔 자세인 팔을 들고 의자에 앉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책상에서 팔을 들어 올리므로 붓의 필압조절과 행필하는 데 어색해 하지만 단기간에 익숙해지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일어서서 쓰시는 분들은 가끔 허리가 아프다 하시지만, 화선지 전지에 작품을 쓰거나 큰 글씨를 쓰게 될 경우에는,

좌우 상하 글씨들의 크기, 행열을 맞추며 쓰기엔 앉아서 쓰시는 것보다는 서서 쓰는 것이 크게 유리하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뵈께요

2018.5. 13.



오늘은 한자서에 5체 중 해서를 임서하는 데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자서에 교본을 임서하시기 앞서 한자부수(5획까지)를 먼저 익히는 게 서책 임서뿐 아니라 먼훗날까지 글쓰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자부수 쓰기를 마치셨다면 이제 서책 임서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자 해서 서체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왕희지서체를 이어받은 **구양순서체**, 육조시대의 **북위서체**, **안진경서체** 등,

크게 세가지 서체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의 교본으로는 여러 서가들의 많은 고전서첩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구양순 서체의 구성궁예천명 법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서에 초심자라면 반드시 운필법을 도해등으로 획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서책이어야 쉽게 적응하게 됩니다.

각 교본마다 장, 단점은 다 각기 있기 마련이지만,

구양순서체는 다른 서체에 비해 서예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측하건대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한자의 활자체가 구양순 서체의 형태와 유사하여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 서예 초심자들에게 구양순서체가 쉽게 다가오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宣遊碧巖

붓의 굵기가 너무 작거나 크고, 붓털이 너무 부드러우면 초심자가 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심자가 서예용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인터넷상 구매보다는 문방사우필방을 방문하여 초심자임을 밝히고 하나하나 문의

하시면서 최초 구매시에는 서예하시는 데 최소의 필요량 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붓의 좋고 나쁨은 판매자도

모른다 합니다. 붓을 사서 붓털의 풀을 물에 풀은 후 먹물을 묻혀 글씨를 써보야 좋고 나쁨을 그제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용해 보시고 좋은 느낌이면 계속 구매하여 사용하시고, 아니라면 다른 품종으로 교체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죠.

다음은 붓글씨를 쓸 종이,즉 화선지를 준비합니다.

처음엔 글씨도 잘 쓰지도 못하는 데 신문지이나 쓰지, 무슨 화선지이나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서예는 화선지에 쓰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화선지에 정성껏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글씨를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얀 종이가 아까워서라도 해이한 맘으로 쓰지 않고 진심을 담아 쓰는 것입니다, 붓글씨는 자신의 맘을 담는 것이라 했죠.ㅎ

먹물은 먹을 베틀에 갈아서 쓰면 좋겠지만 요즘은 바쁜 세상이라서 많은 분들이 먹물을 구매하여 쓰십니다.

먹을 갈면서 정신을 맑고 밝게 가다듬고 수양하는 자세가 좋으려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먹을 갈아봄직도 합니다.

오늘 연습 삼아 써본 한글 시를 여기 올려 봅니다.

숨안발이고에어러와발신
 겔번고유텐도개쪼도이랑
 어만마하포올라로해없아
 봐물주나느라도르주어내
 정주어누로려오조달고도애
 유라봐워갈지거근려아밥인
 년내주주이루튼조가프은이
 초가라고봐해식근주다먹되
 여어먼갓주보당안고하있주
 름찌산고고이찌마피면니라
 서살위싶겔는개해곤짜오언
 실고에은그드하주하증늘젠
 에있바겐적라고고다내은가
 서는위없거마비낮그지늦처
 지보는려이고에러말는럼
 벽듯지잠지도먹면고다아
 압바가이만않은못시하무
 한라고않내되김들키루리
 응만싶와가게치은지에생
 수보은도종맛찌척않한각
 지덴돌아있개하아번해
 말없아라다가지도이봐
 고는놉하해저말악상도
 말지지는주녁고사전할

벽
 압
 한
 응
 수

김용택님시납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담에 볼게요. 2018. 5. 20.

그대를보고있어도
나는그대가보고싶다
보고있어도다못본그대
보고돌아서면더못본그대
보고또봐도또보고싶은그대
팔빛까지닿는그리움이어
그대여운처럼길어질때
눈을감아도나는그대가보입
니다하늘빛구름처럼떠오르
는그월굴그대에게끝도없이
젖어도는내눈빛
얼마나깊은지무슨말을하려
는지
그대는보일까
그대는들을까
고요한내눈빛의뜨거운
간절함을그대는알까
그대를보고있어도
나는그대가보고싶다

무오년가을이오는길목에
시인이채님의글을씁니다

碧巖 韓應洙

----- < > -----

오랫만에 여기 들어와 글을 씁니다.

몇군데 공모전에 출품 준비하고 나름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느라 글 올리는 데 게으름을 피었나 볼

니다

기초필법강좌 서책 임서를 2~3회 마치고 나면 윤필법이 손에 익고 붓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와 닿
을 겁니다.

오늘은 서체별로 임서할 서책을 주시스런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6자~8자) 전자문

해서체 서책을 구입, 임서하실 것을 권합니다.

내용들로 4자

전자문은 중복되지 않은 천개의 글자로 우주의 이치, 인간사회의 도리, 등등, 동양사상을 근간하는

250구로 짜여 있어 알아 두면 대부분 우리 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가급적 서책의 글자가 크게 인쇄된 서책이 혼자서 따라 쓰기가 쉽고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서(隸書)의 경우

우선, <기초필법강좌 6권 예서 한사신비>를 임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할 때 확장성이

예서의 서첩은 대부분 한나라 전,후기의 비문 서체들을 필사, 인쇄된 서책들 입니다. 예서체를 감안

니다.

큰 사신비를 먼저 임서하시고 난후 을영비, 조전비, 예기비,등, 서책을 임서함이 능률적이리라 생각됩

전서(篆書)의 경우에는

서 상하 좌우가

등석여 서체로 쓰인 전서 서첩(1 page 에 1 글자)을 구해 임서하심이 좋습니다. 전서는 한 글자 내에

느끼게 되므로

대칭되는 획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많으므로 처음 접할 때 서책의 글씨체가 작으면 임서에 어려움을

서책의 글씨 활자체가 클수록 임서하는 데 용이합니다.

행서(行書)의 경우는

위의 해서, 예서. 전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행서를 쓰심이 가장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 쓰는 서체라고

다시 말하면 행서는 붓의 운필법이 손에 충분히 익숙해졌고 한자의 각 획이 두뇌속에 기억된 상태에

볼때, 한자의 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서를 연습하는 것은 투입한 시간에 비해 성취도가 작다라는 것
입니다. 즉,시간낭비죠.

전서, 예서, 해서의 서체연습을 어느정도 마친 후 <기초필법강좌 3권과 4권 행서>를 임서하시고 난
후 행서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서의 서체는 더욱 다양하다고 생각 됩니다. 행서체는 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까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행서체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쓸수는 있지만 그러나 획의 필
압변화와 획의 기필과

운필, 붓을 세워 던하는 스킬,등등, 나름 지켜야 하는 운필법은 많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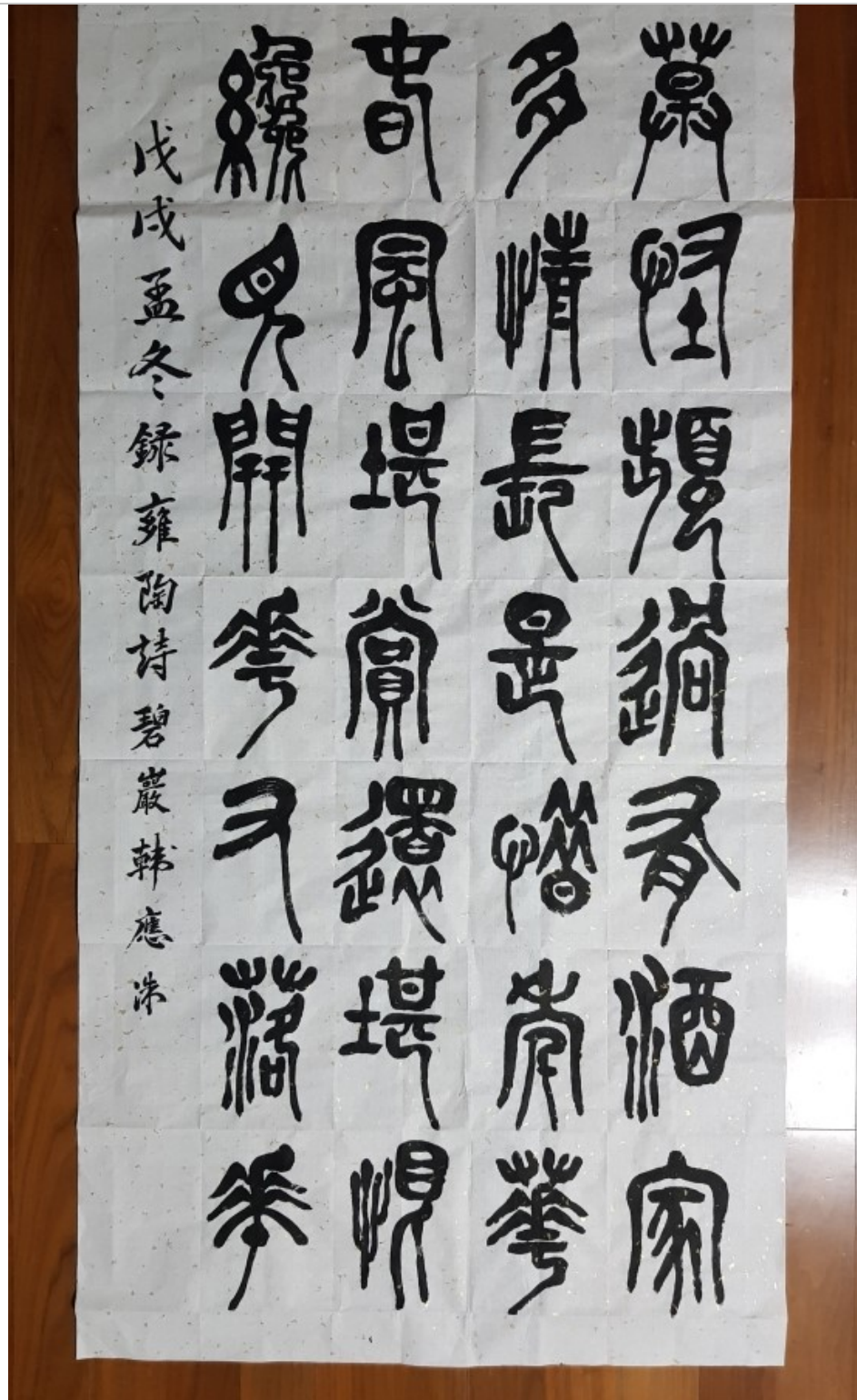
이런 운필법과 필압변화를 나름 이해하고 지켜 써야만 비로서 힘차고 아름다운 글씨가 탄생된답
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께요. 2018.12.9.

국,한문 혼용체

푸른 동해 다시가 푸른 민족이 살고 있다
 難을 막아내고 일어서서 永遠한 주를
 言하리차고 일어서서 永遠한 주를
 來라와산疊疊물결아름답다 내나
 歷史自由와正義와 사랑위에는 오래
 레잘살게 하옵소서
 苦

전서체 - 詩意를 머리속에 두고 필압의 변화를 주며 연습지에 써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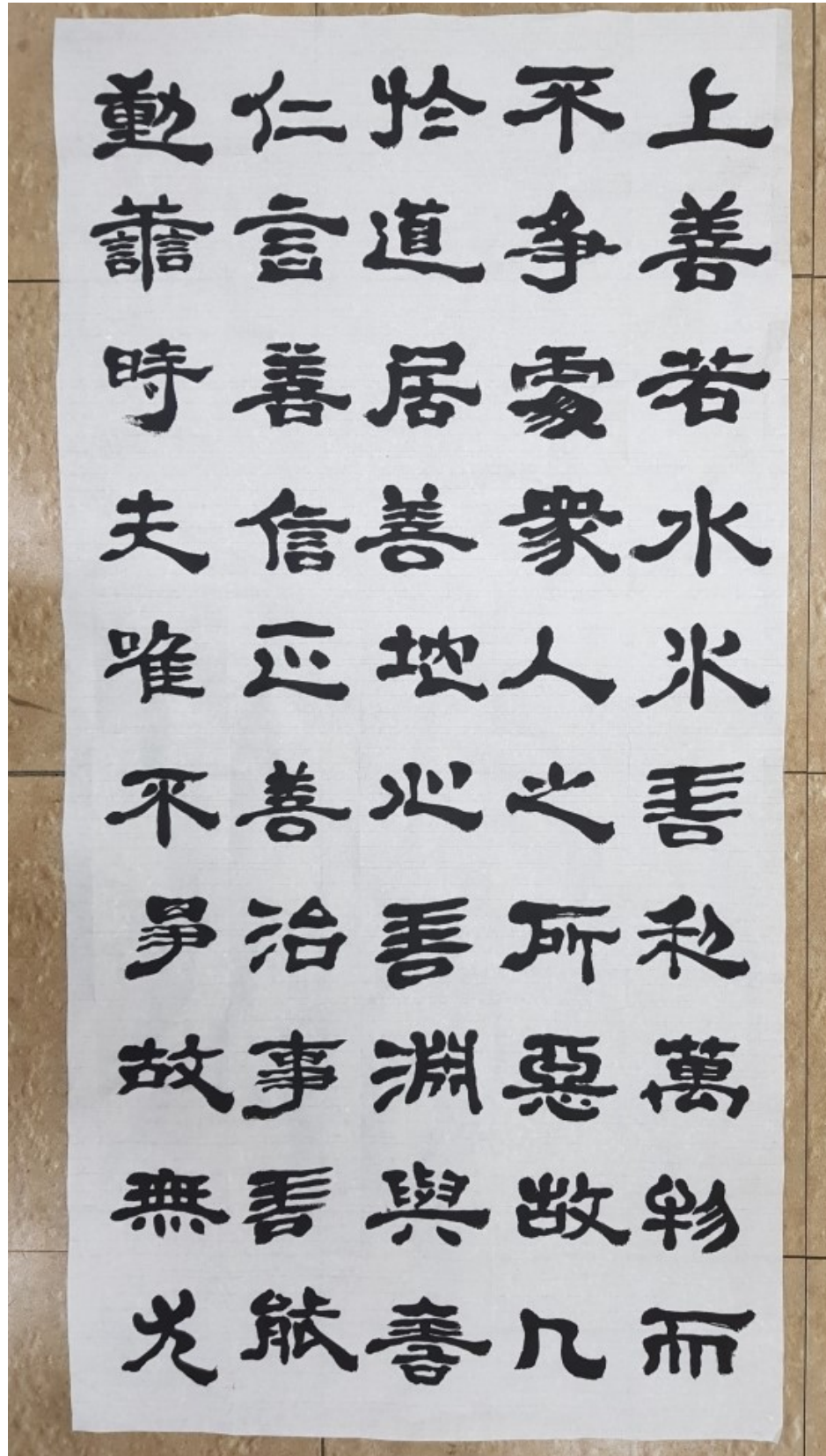


莫怪頻過有酒家 多情長是惜年花
春風堪賞還堪恨 纔見開華又落華

주막집 자주 감을 괴이하다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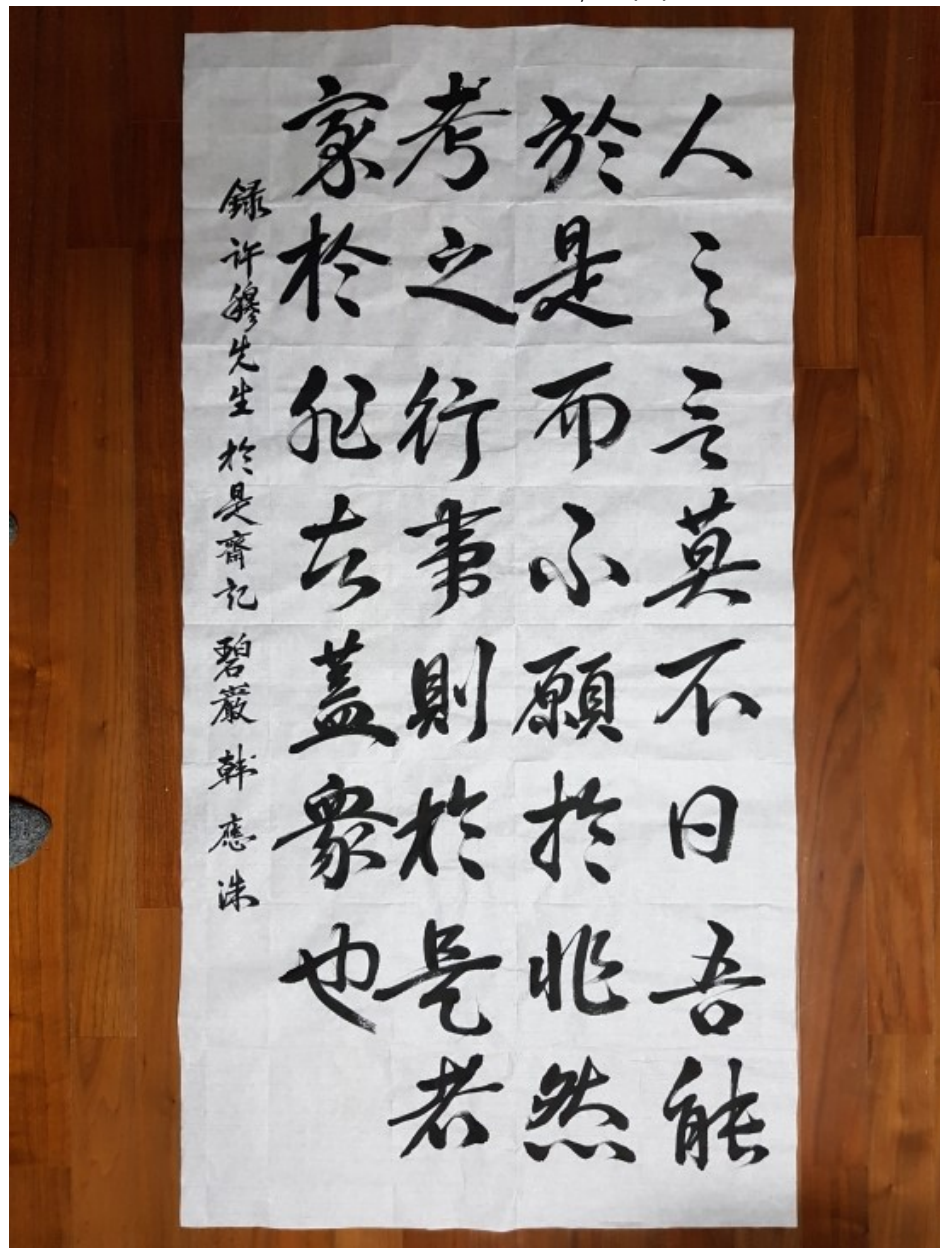
다정하다 유비로든 험기 감이 애석하이크다

예서체 - 老子的 道德經 中 上善若水



城閣簷空雄氣棲海
翫壺髮暮雲低可憐
秀賴終生處落葉樹
風入碧溪

錄少泉先生詩
碧巖韓應洙



人之言莫不曰吾能於是而不願於非

然考之行事則於是者寡於非者蓋衆也

- 사람들은 옳은 일만 능히 하고 그른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옳은 일은 적고 그른 일이 대부분이더라 - 허목 선생

----- < > -----



오늘은 붓글씨 쓰기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해요

대한민국 서예는 한글과 한문 2종의 문자만을 붓글씨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는 제외하고요 문자란 주관적 혹은 객관적 의견이나 사실을 표현하는 음성 구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전

약속된

일종의 부호라고 합니다.

로,

문자는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있어서 구어(口語)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만들어져 왔고 구어보다 더 신

보관, 대량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와 구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인류가 최초 사용한 문자는 기원전 3천여년경의 쐽기문자라고 합니다.

문자는 크게 2가지로 구별합니다

1. **표어문자** - 그림문자, 상형문자, 표의문자.

2. **표음문자** - 음소문자, 음절문자.

(예)

1. **우리나라의 한글**은 음성자질을 기호로 표현하는 자질문자로서 **표음문자**,

2. **중국의 한자**는 형태를 기호로 표현하는 **표어문자**이며,

3. **일본어** 가나는 음절을 기호로 표현하는 음절문자로서 **표음문자**,

4. **알파벳**은 자음, 모음의 낱소리를 기호로 표현하는 음소문자인 **표음문자**로 구별됩니다.

- 이렇게 구어(口語)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중 우리들은 한글과 한자를 붓글씨

의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당연 자국어인 한자만을 붓글씨로 쓰고 있고, 일본도 한자만을 위주로 하는 붓글씨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한글을 붓글씨로 쓸 때, 한글의 경우는 한 획의 누락이나 첨획

이

되었을 때에는 아예 다른 뜻과 내용으로 전달되는 데 비해

- 한자의 경우는 하나 혹은 두개의 획의 누락 또는 첨획이 되었다 해도 아예 다른 문자가 되지 않

는

경우는 잘못 썼다고 그리 놀라워 하지도 않습니다. 즉, 획의 가감이 비교적 자유스럽다고나 할

까요.

표음문자와 표어(표의)문자 각각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사(書寫)

우리들이 처음 붓글씨 쓰기에 입문할 때 서예 초심자로서 한글이나 한문 서책 혹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글씨 체본을 보고 글자 자형 그대로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의 기본 획과 글자를 그대로 베끼듯 일정기간 동안 쓰고 난 후는 모본 글씨와 비슷하거나 거의 완벽할 정도의 붓글씨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모본을 보고 붓글씨 쓰기 함을 **서사(書寫)**, 또는 **임서(臨書)**라고도 합니다. 그대로 베껴내듯 쓴다는 뜻이죠.

서예(書藝)

그렇다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서예란 무엇일까?

서예의 사전적 정의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즉, 예술적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붓글씨를 쓰고 있는 한글과 한자의 변천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한글의 서체는 한글 창제 반포를 했던 **판본체**와 궁중과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주로 써온 **궁체(내간체)**,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써 오던 **민체**, 한글은 이 세가지 서체로 구분되어 꾸준히 변천하여 왔습니다. 다만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한글 사용이 억제되었으나, 일제로 부터 해방 이후에는 국내 학자들의 활발한 한글 연구에 맞추어 대한민국 건국 초기 서예가들의 노력으로 한글서체가 정립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한자의 경우는 과거 고대 중국은 여러 나라가 할거하던 BC 221년 진시황은 육국(六國)을 멸한 후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를 창건하였지만 문자와 각종 제도는 각 지역마다 서로 상이하여 여러 제도의 통일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도량형, 화폐, 등의 통일을 기한 후, 승상 이사의 제의를 받아 들여 한나라 글자 이외의 글자는 없애는 등, **서동문(書同文)**정책- 즉, 문자통일을 기하였으나 공문서에만 국한되었고 실질적 문자 통일을 이루지 못한채 진시황은 사망하였고 그 후 3 년이 지난 BC 206년 진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의 문자통일은 형식적으로는 소위 대전(大篆)에서 소전(小篆)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실질적 내용으로는 획이 복잡하던 갑골문과 금문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던 각 지방의 간체자 등을 모으고, 일부 문자의 획을 간소화 또는 폐지 등으로 전국의 문자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을 뿐이었다.

이후 건국된 **한나라**에서는 진나라때 문자통일 시의 소전체 획의 복잡성을 탈피하고 보다 간결한 서체로의 문자변환을 꾀하고자 당시 예관(隸官)이었던 정막, 등이 개발한 문자의 서체는 지금의 예서체 초기서체인 고예(古隸)입니다. 초기 고예의 서체는 기존 소전체의 전(轉)획을 -> 구(鉤)획으로 바꾸고 일부분자의 획을 간소화하는 정도였습니다. 재위 426년의 한나라는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동안 위정자들의 성덕과 묘비등의 입비(立碑)문화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입비문화 초기 질박했던 고예의 비문 자형에서 점차 팔분예(八分隸)로의 변화,

있을까 라는 생각을 서자(書者)들이 하게 된게 아닌가 추정되는 점 입니다.

우리는 한나라의 입비문화기의 중, 후기를 글씨를 아름답게 쓰려 하는 즉, 서예의 시작 시기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예(書藝)란 글씨를 모방해서 쓰는 서사(書寫)와는 달리 글씨를 쓰는 서자(書者)가 자기의 혼을 담아 자기만의 글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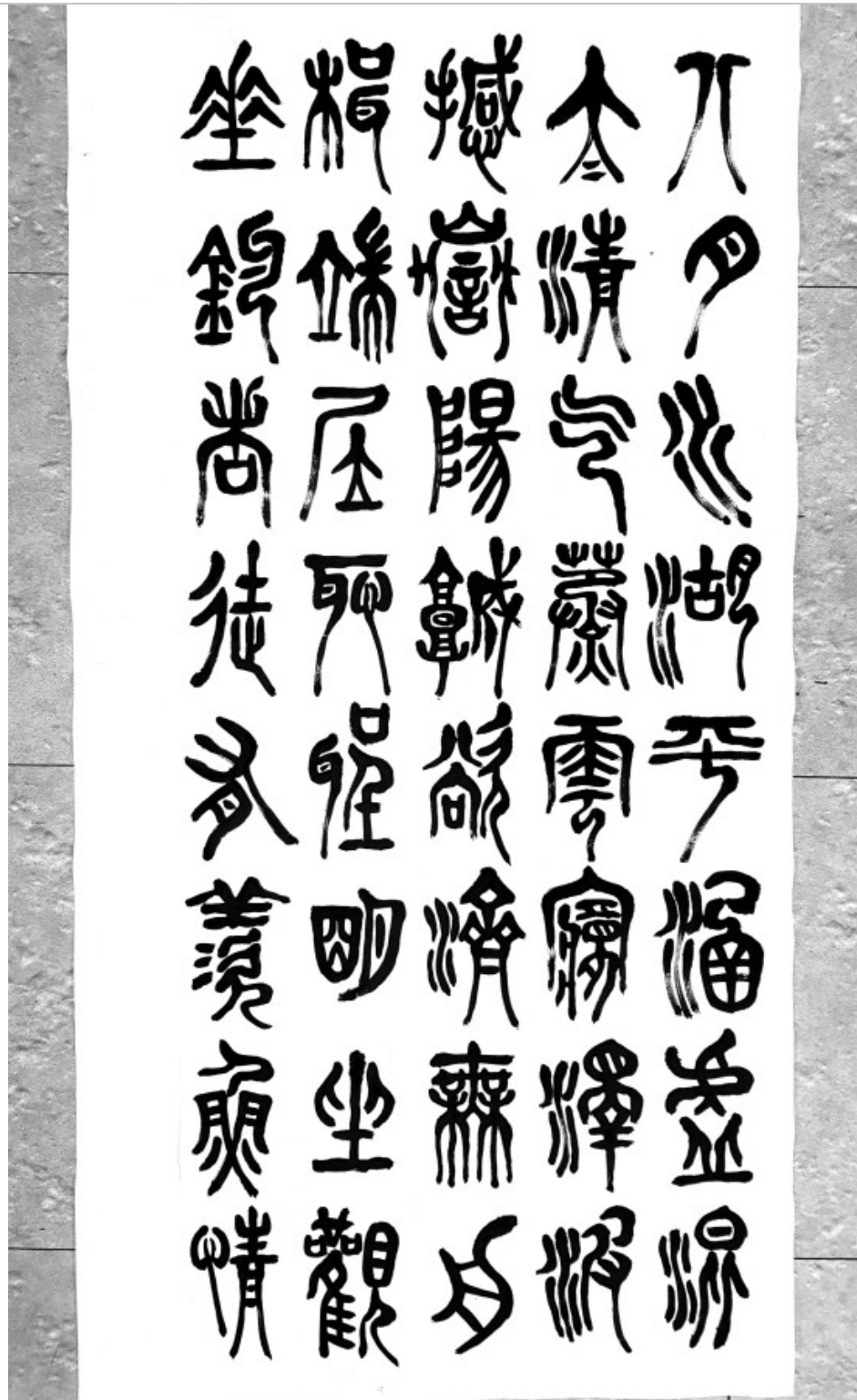
시대적 합의점이 될 수 있는 힘차고 아름다운 글씨를 쓰고자 함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네요.

여기에서 글씨의 아름다움이란 서자(書者) 본인의 주관적 개념과 시대적 객관적 아름다움의 가치, 기준에 부합될 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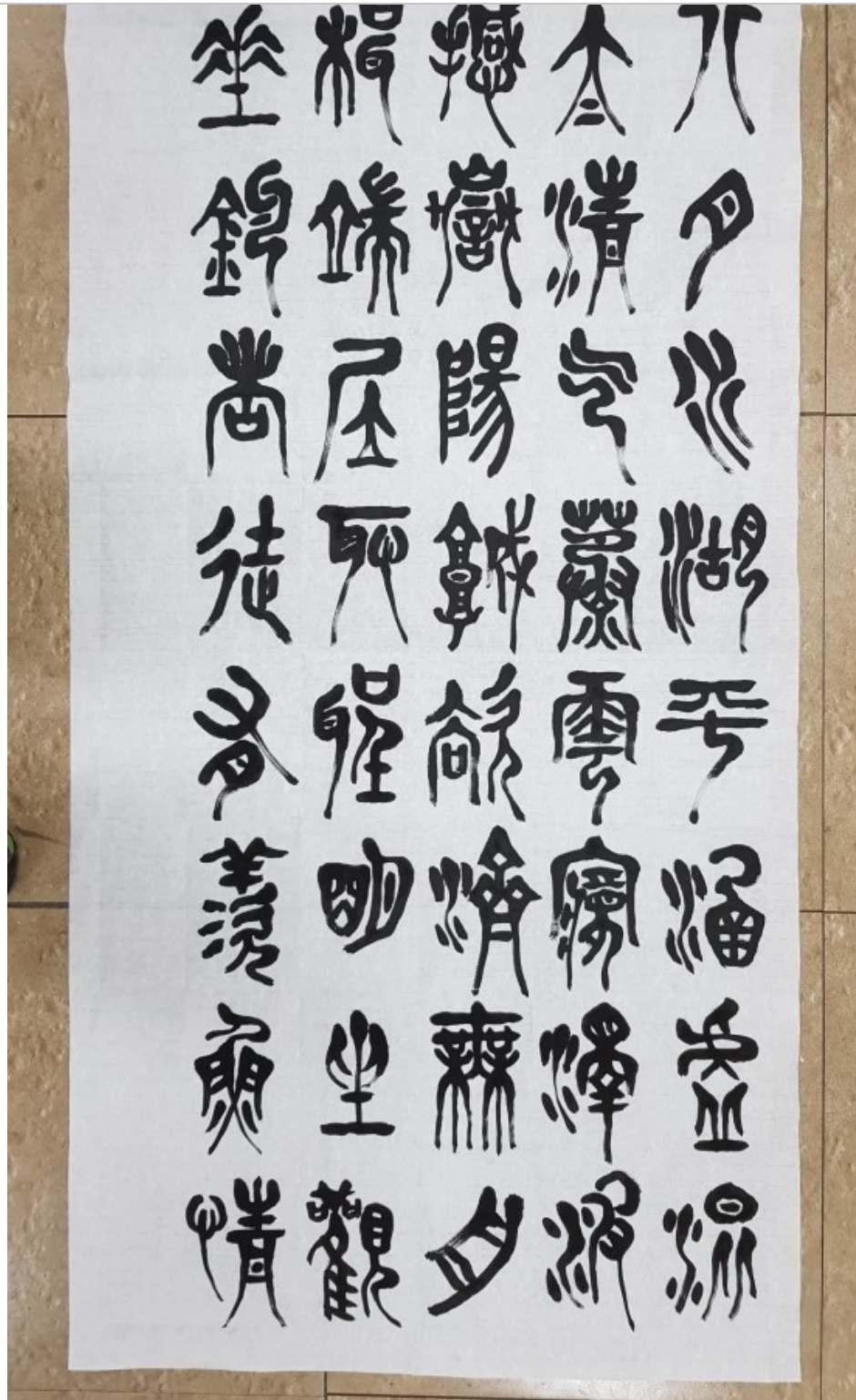
많은 공감의 시선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붓글씨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서사(書寫)로 시작해서 이제 서예(書藝)를 하는 우리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전체 - 자전에서 한자 한자씩 집자하여 나만의 아름다운 글씨를
써 볼까하고 고심중입니다. 반절연습지에 집자한후 전지
연습지에 두번째 쓴 글씨입니다. 2019. 2. 1. 쓴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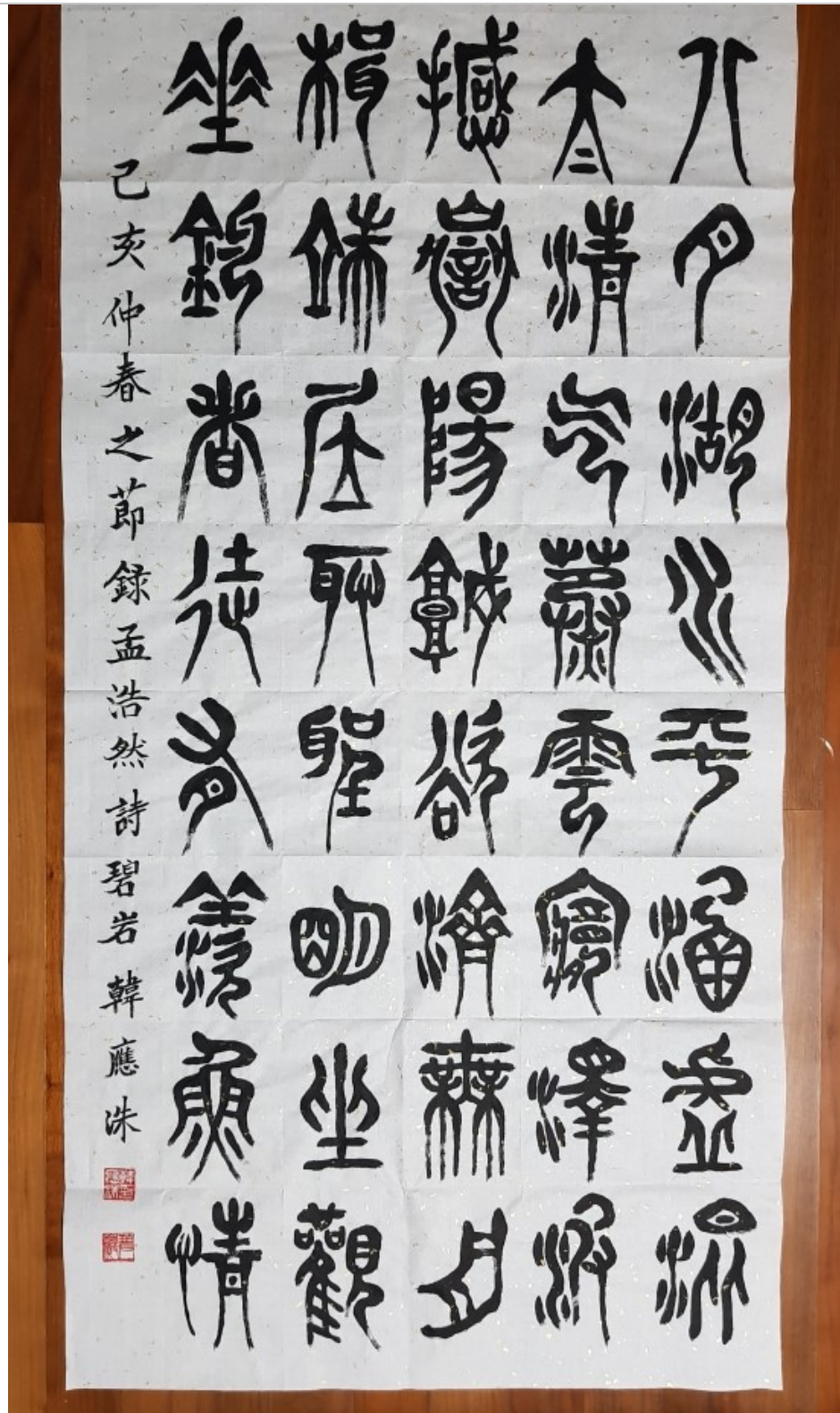


일주일 전에集字하여 글자형을 선정했던 字形 中 느낌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몇몇 글자의 형태를 교체하고 시상 느낌을 살려 보려고 필압변화를 꾀하며 쓴 글씨입니다 - 2019, 2, 8.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2019. 2. 8.

제 자신 스스로 침삭을 거쳐 써 낸 8회째의 습작입니다. 2019.3.29.



위 사진의 정자체와 해설입니다 - 孟浩然的 詩

八月湖水平 涵虛混太清

팔월호수평

함허혼태청

팔월의 호수는 넓고 넓어

宣遊碧巖

기운은 운몽택을 찌내듯 무르익고

물결은 악양성을 흔들만 하구나

欲濟無舟楫 端居恥聖明

욕제무주楫

단거치성명

건너려 함에 배와 노가 없고

일 없이 지내자니 성군에 부끄럽도다

坐觀垂釣者 徒有羨魚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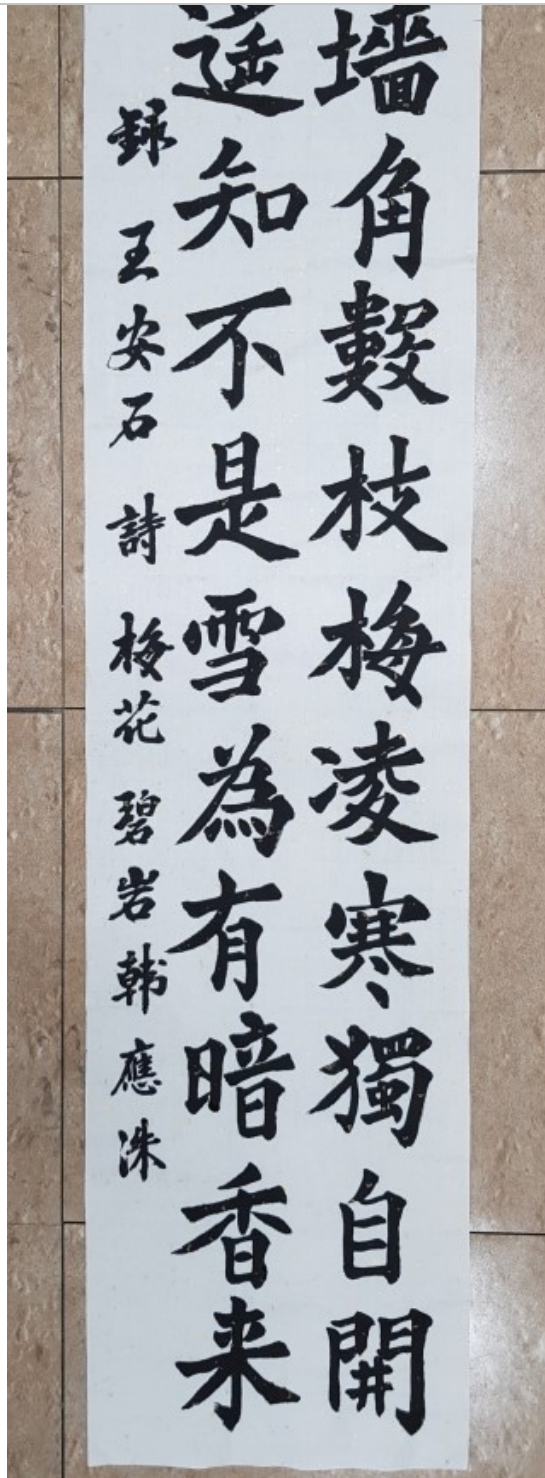
좌관수조자

도유선어정

앉아서 낚시드리운 사람 바라보니

공연히 고기 부러운 마음만 드는구나

-----<>-----



위 사진 중 우측 글씨는 篆書 라서 정자체와 해석을 첨부하겠습니다

震默大師 님의 禪詩

天袞地席山爲枕 月燭雲屏海作樽

천금지석산위침

월촉운병해작준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대취거연잉기무

각험장수괘곤륜

宣遊碧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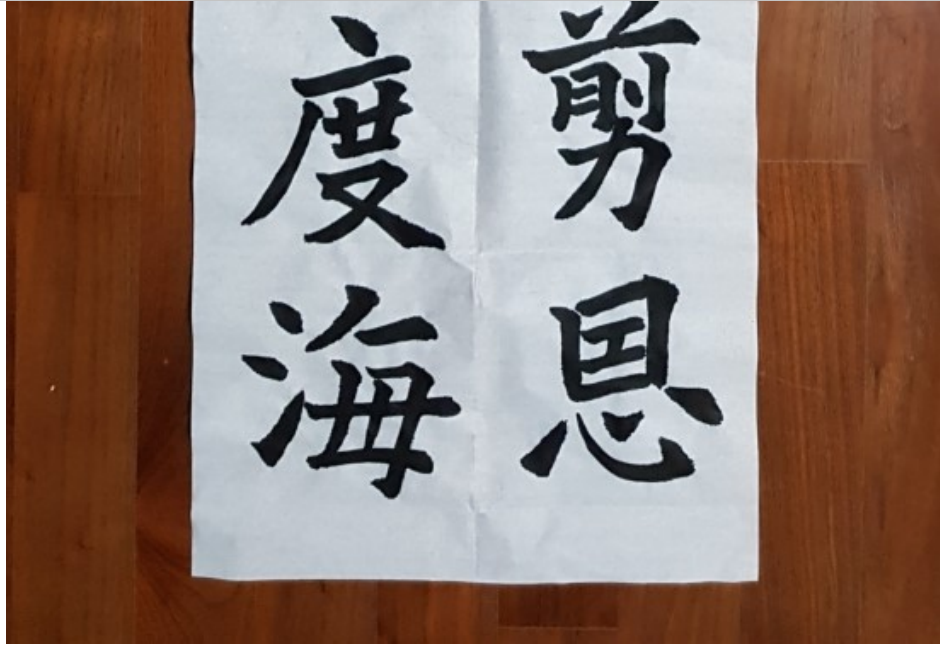
크게 취하여 문연히 일어나 춤을 주려 하나

염려스럽도다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 것이

- 대사의 호탕함이 잘 표현된 선시입니다.

- 장맹룡 비 복위체 - 붓끝을 접어 쓴 글씨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붓글씨 획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오던 서예 획에 대해 써 보겠습니다.

書藝(서예)에서의 劃(획)이란,
획의 종류로써

첫째, 육필(肉筆) - 붓에 먹물을 찍어 종이에 바르듯이 쓴 글씨

둘째, 근필(筋筆) - 획 중간 중간에 절을 주면서 쓴 글씨

셋째, 골필(骨筆) - 붓끝을 접어 세운 상태로 필압을 자제하며 앙상한 나뭇가지 처럼 쓴 글

씨

넷째, 근골필(筋骨筆) - 골필에 필압을 가하여 획 중간 중간에 절을 주고 쓴 글씨

- 붓글씨 획은 위와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서예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서책을 임서하거나 아니면 체본을 보고 무심코 임서하려 합
니다.

는 않다.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붓글씨를 써야만 하는지를 한번이라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쓰는 것 같지

자음과 모음, 부수를 쓰고 난 후, 서책의 글자를 한자 한자 쓰고, 또 써 나가고 있다.

서책이나

본래의 뜻은 옛부터 전해 내려 오고 있는 빼어난 글씨와 내 서체가 닮아 가기 위한 방식으로

것이죠

체본을 보고 붓글씨를 쓰고, 또 쓰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빼어난 그 옛 글씨를 재현해 보려는

하게 써 낼

이렇게 많은 수련기간을 보내고 난 후 여러 서첩들의 글자 각 획의 외형은 어느 정도는 유사

수가 있게 된답니다.

이때의 수련자들의 서예 수준을 나름 득획(得劃)을 하셨다는 대가(大家)님들은 그 수련자들

붓글씨의 외형은 그럴듯하게 그려 놓았으나, 글씨의 한획 한획에 혼과 기가 서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획 속에 육(肉)이라는 살만 있고, 근(筋)과 골(骨)이 없어 기와 힘이 없는 나약한 획이라는 것이지요.

속에서 뼈와 근육을 느끼게 하는 획을 쓰려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서첩에 가까운 글씨를 재현하고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붓 글씨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뼈와 근육이 없는 붓글씨는 붓으로 종이 위에 먹물을 그냥 발라 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의 혹독한 평가죠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난, 어느날 획속에 뼈와 근육?들을 환상인듯 느끼게 되는 순간을 짧게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순간 잠시 이것이로구나 라는 느낌을 맛본 적은 있었습니다. 아직 옛분들의 강하면서 수려한 획을 재현해 낼수는 없어도 짧은 시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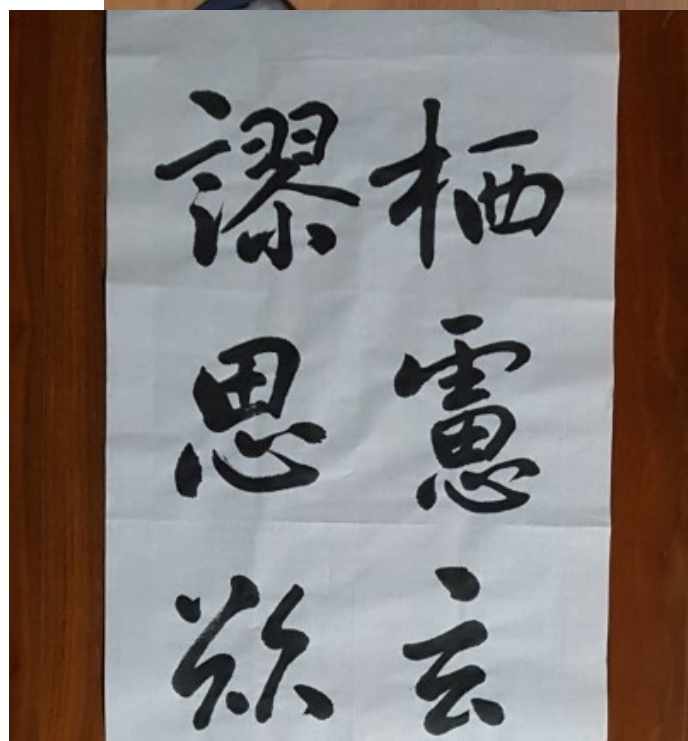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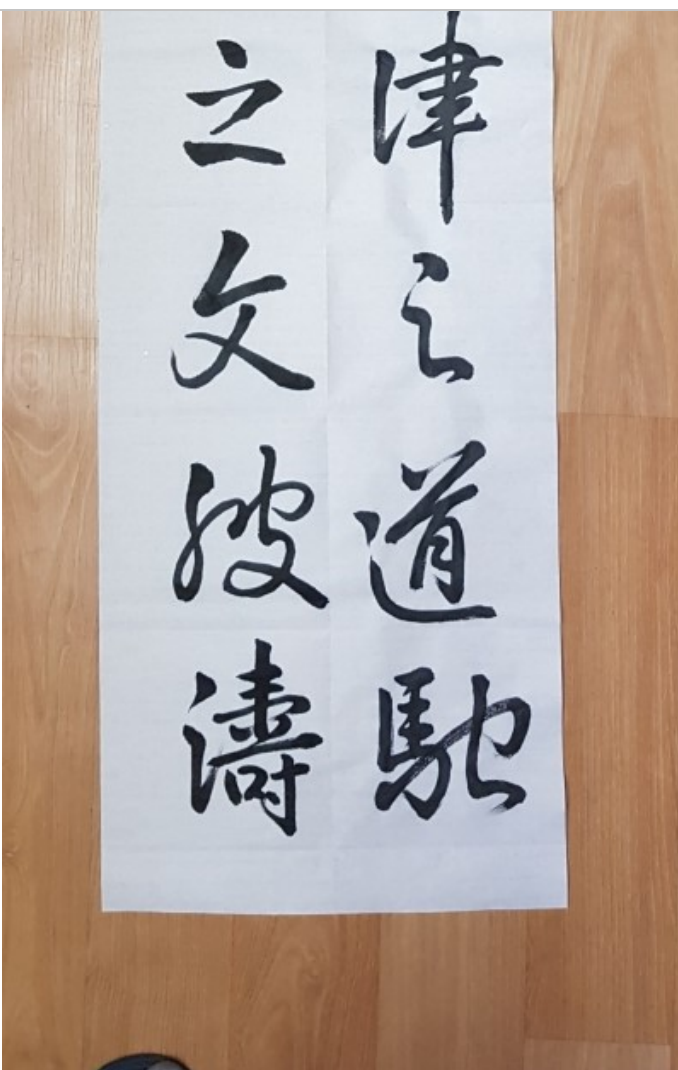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조금씩 하지도 말고 느긋하게 마음 먹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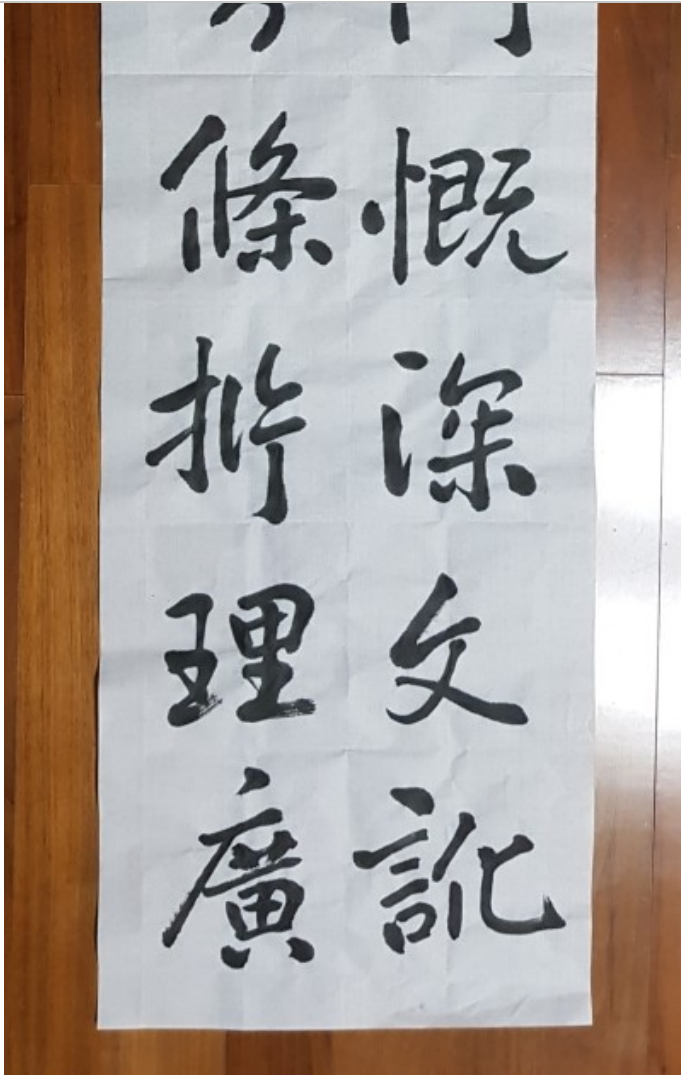
그저 육필(肉筆)이 아닌 근골필(筋骨筆)로 뼈와 근육이 서려 있는 수려하고 강한 느낌의 글씨...

먼 훗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2019. 9.

5.







#. 공감이 느껴지나요? 오랜 시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공감에 참여 하십시오.

#. 공감 버튼 누르러 가기 ---> 스크롤하여 화면 하단 왼쪽하트 클릭,

선유 벽암

자기소개를 입력하세요 ,

이웃추가

이 블로그 **취미생활5- 서예** 카테고리 글

정암 조광조

2018. 8. 12.

1 0

성경 <고린도전서 13:4-7> 사랑

2018. 6. 1.

2 0

한글서예, 한자서예, 혼자서 쓰기

2018. 4. 16.

70 27

백호 임제

2018. 4. 7.

0 0

예서체 - 작품쓰기

2018. 3. 25.

5 0



이 블로그 인기글

예서체 - 작품쓰기

2018. 3. 25.

70

27

고품石水(공산석수) - 도사의 도덕강 제8강에서의

2018. 11. 13.

7 0

한자서예 전서체

2017. 9. 29.

4 0

隸書體 臨書(예서체 임시) - 史晨碑(사신비),乙瑛碑(을영비)

2018. 1. 17.

1 0

전서체 작품쓰기

2018. 1. 28.

2 0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